프리즘

출판문화 역기능의 退治

이경훈 본지 편집위원

맹수인 사자의 몸 속에도 해충이 기생하면 얼마 못살고 죽고 만다는 경구가 있다.

21세기를 눈앞에 하고 90년대를 맞는 새아침에 숙연한 마음으로 우리의 출판문화의 기여기능을 저울질하고 싶다. 저울질에는 먼저 객관적 잣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는 1972년에 유네스코가 제정하고, 각국 정부에 그 실천을 권고한 도서헌장(Chater of the Book)을 잣대로 삼는다. 이 헌장은 모두 10개조로 되어 있는데, 이중 도서문화의 질의 향상과 享受의 측면에서 더욱 관계가 깊은 몇개 조항을 우리의 현재적 상황에 대입하는 방법이다.

즉, 도서헌장 제2조는 "책은 교육의 근본이다"란 선언이다. 예를 들어 지금 세계는 '얄타에서 몰타로' 급변하면서, 교육혁명이 요청되는 마당에 시의에 맞는 독서물이 교육현장으로 적시에 공급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의 충실화가 근본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현장은 어느새 이 사업을 방기하고 말았다.

또 헌장 3조는 "사회는 저작자들이 창조적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특별한 책무가 있다"란 선언이다. 그리고 이에 부연하기를 "모든 사람은 자기가 저술한 과학적 문학적 혹은 예술적 저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 대목은 저작자의 경제적 권리의 존중이다.

그런데 우리의 출판문화는 UCC조약의 가입을 시점으로 이미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만을 좇는 바람에 자연히 경합물이 양산되게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창조적 교육활동에 보탬도 안되며 나아가서 저작자의 창조의욕을 손상한다.

또 제6조는 "도서판매업자는 출판사와 독서대중 사이를 맺는 중요한 매체로서 봉사한다"고 선언하고 이를 부연하여 서점은 독서습관을 기르는 노력의 제일선에서 문화적, 교육적 책임을 겸한다고 했다. 다시금 서점의 직분이 이토록 중요함을 일깨운다.

그러나 우리 실정은 80년대 초에 일기 시작한 100평 이상의 대도시 대형서점을 빼면, 전국에 산재한 4천여개의 군소서점은 협소한 공간에 고작 교과용 학습참고서이거나, 판권에 명시된 저역자에게는 거의 印稅지불이 끝난 책들로서, 정상과정을 밟은 類書에 비하여 할인율이 월등히 많은 소위 덤핑물을 팔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서점이 범하는 문화의 역기능은 참으로 막대한 것이다.

또한 제7조는 "도서관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며 지혜와 美의 향수를 위한 국가의 자원이다"라고 했다. 학교는 졸업을 해도 도서관은 졸업이 없다는 말이 선진국에서 유행되는 격언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출판문화란 유기체내에서 기생활동하는 해충과 같은 장애요인을 스스로 퇴치하고 사회적 힘으로 방어하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신설되는 文化部 정책에 기대를 걸어본다.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89년1월25일까지「출판저널」독서퀴즈 담당자 앞(110-190 ·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출판저널」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출판저널」제55호(90년2월5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주)시사영어사에서 펴낸「엘리트英韓辭典」(정가 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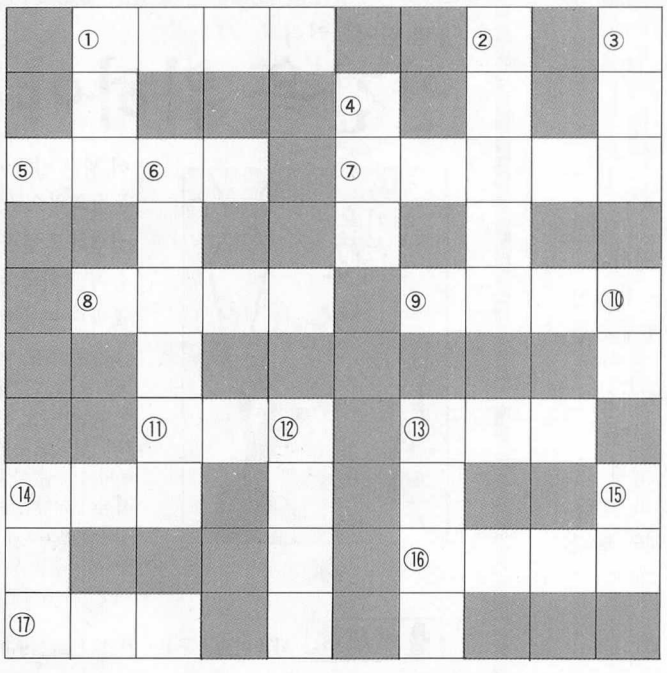
이번호 독서퀴즈는 한국 및 중국의 고전과 관련된 낱말 짜맞추기로 출제했습니다. 다음의 가로 및 세로 열쇠를 읽고 빈칸에 맞는 작가나 작품명을 써넣어 주십시오.

가로열쇠

① 허균의 작품으로 최초의 국문 소설로 일컬어진다. ⑤ 이율곡이 지은 어린이용 수신서. ⑦ 조선시대 때 비변사에서 논의된 사항을 일지식으로 기록한 책 ⑧ 최치원이 당나라 체재시 지은 한시문집 ⑨ 이율곡의 어머니 ⑪설총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꽃으로 군신의 관계를 풍유한 글. ⑬조선 순조때 兪氏부인이 바늘을 의인화하여 지은 제문 ⑭손오공 ⑯신라 때 月明師가 죽은 누이를 위해 쓴 향가 ⑰「목민심서」를 지은 실학자

세로열쇠

① 청나라 때의 艶情장편소설. ② 윤선도가 지은 시조. 춘하추동 4계절의 어부생활을 각 10수씩에 담았다. ③ 혜경궁 홍씨 ④ 유성룡이 임진왜란의 실상을 기록한 책 ⑥ 조선 숙종 때의 박두세가 지은 책. 당시의 양반과 京鄕의 풍속, 사회제도 등을 풍자했다. ⑩ 이태백, 두보, 왕유. 宋詞와 더불어 중국문학의 쌍벽.⑫중국 송나라의 손목이 고려시대의 우리말 356단어를 추려 한자로 적은 책 ⑬김종직이 세조의 왕위찬탈을 풍자하여 지은 글. ⑭「동문선」을 엮은 조선초기의 문장가 ⑮신라시대의 노래.



제51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1호 (11월20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178통, 이중 정답자는 153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출판저널」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1. ②許蘭雪軒 2. ①흙 3. ②司馬遷 4. ③루소

당첨자

장성희(서울 마포구 아현2동 669-9. 13/7)

강창애(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 도서관 수서과)

이문수(서울 양천구 신월동 222-12)

김양금(경북 포항시 용흥동 한라맨션 201-109호)

우상희(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9. 15/5)

출판저널

통권 제53호 / 1990년 1월 5일 발행

발행인——鄭鎭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壹秀
편집주간——李勝羽
편집차장——康鐵柱
기자——權正子 李權雨 洪賢淑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차장——尹東鎬
업무·광고——崔兌源 李義天
崔炳天 金攸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진식자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자문위원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寧珉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雲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潘星完 邊衡尹 徐洸善 徐淵昊
成完慶 宋相庸 愼鏞廈 安秉永
安輝濬 吳光洙 劉載天 陸明心
尹錫範 李康洙 李康淑 李璟薰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李元馥 李重漢 李姬載 張會翼
鄭用琢 鄭雲暎 鄭鎭弘 鄭丙圭
曺大鉉 趙玉羅 陳德奎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崔鐘庫
韓相震 韓勝憲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 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독자서평담당자」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